

한국, 지식재산권 국제분류협정에 모두 가입

트 허청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주관하는 지식재산권의 국제분류에 관한 4개의 다자간 협정에 모두 가입하
크여 정식회원국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입한 2개의 국제분류협정은 '표장의 도형요소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비엔나협정(Vienna Agreement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the Figurative Elements of Marks)' 과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에 관한 로카르노협정(the Locarno Agreement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Industrial Designs)' 으로 2011. 4. 17자로 국내에서 발효되었다.

비엔나협정은 도형으로 구성된 상표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 및 표준을 정한 것으로, 도형요소를 29개 대분류와 1,667개 소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도형상표의 검색이 용이해지고 상표심사의 품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로카르노협정은 산업디자인 물품분류에 관한 국제표준으로, 물품의 기능에 따라 32개류 219개군 7,024개의 물품으로 구분하여 분류함으로써 디자인의 컨셉 보호강화에 적합한 분류체계로서 디자인권의 보호 범위가 확대되어 국내 디자인 산업의 성장기반 구축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비엔나협정과 로카르노협정 가입에 따라 상표와 디자인제도의 국제화 및 통일화 추세에 부응하는 한편, 도형상표의 분류와 디자인물품의 분류에 대한 각국의 정책이나 통계자료 등에 대한 접근 및 활용이 용이하고 분류 데이터의 객관성이 높아져 상표 및 디자인에 관한 국제적 동향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은 1999. 1. 8. 국제상품분류 및 1999. 10. 8. 국제특허분류협정의 가입에 이어 이번 양 협정에 가입함으로써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4개의 국제분류협정에 모두 가입하게 되어 명실공히 세계 4강의 지식재산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으며, 세계 최강의 지식재산강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자인 맵에서 “오늘의 지식재산권” 정보제공

트 허청은 디자인관련 지식재산권 정보서비스인 디자인 맵(www.designmap.or.kr)을 통해 중소기업과 디자이너에게
크필요한 최신 공개·등록된 디자인, 상표 및 특허정보를 '오늘의 지식재산권' 이란 제목으로 웹서비스와 함께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매일 공개·등록되는 디자인, 상표, 특허권 중 중소기업과 디자이너가 알아야 할 권리정보를 선별하여 날마다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매주 '금주의 지식재산권' 이라는 뉴스레터를 발송하여 업계에서는 별도의 노력이 없이도 한눈에 디자인과 브랜드 및 주요 기술의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게 되며, 나아가 6월부터는 전용 모바일 앱을 구축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다.

한국, WIPO 상표법위원회 의장 피선

특 허청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본부에서 개최된 제25차 WIPO 상표법위원회 회의에서 박성준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장이 회원국 만장일치로 의장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과장은 앞으로 1년 동안 전 세계 상표 및 디자인 관련 규범 논의를 주도하고 나라별로 다른 입장을 조정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박 과장은 주 제네바 특허관으로 재임하던 2009년 제21차 상표법 위원회 회의에서도 의장직을 역임한 바 있어 이번이 두 번째 의장 선임이 된다. 아울러, 2008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WIPO 임시총회 부의장을 맡은 바 있다.

박 과장은 행시 35회로 특허청 혁신팀장, 정보개발팀장을 역임하였으며,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다.

교과부와 협력하여 「공공기관 보유기술 공동 활용사업」 본격 착수

특 허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한 전략적인 기술이전 지원이 추진된다.

특 특허청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협력하여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산업계에 효과적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특정기술분야에서 공동 특허포트폴리오(技術群)를 구축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는 「공공기관 보유기술 공동 활용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 특허포트폴리오 구축이란 특정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개별 단위기술들을 다수의 기관으로부터 발굴하여 하나로 패키징(Packaging)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개별 기술별로 기술이전을 지원하는 방식이었으나, 최근 기술개발 주체가 다양해지고 기술의 융·복합화 현상에 따라 대학과 공공(연)이 보유한 기술을 특정 테마별로 패키징(Packaging)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후 산업계에 이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일본은 이미 2009년부터 대학들이 보유한 기초기술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구축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 일본은 「지식재산추진계획 2008」을 통해 미국 대학, 다국적 기업과의 협력과 경쟁을 위해서는 특허포트폴리오 구축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관련 사업(大學保有知的財産の群管理による活用支援)을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특허청과 교과부는 올해 시범적으로 총 3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의 성공 모델을 확립한 후 점차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이를 위해 각 부처가 보유한 노하우와 전문성에 맞게 사업추진 단계별로 필요한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우선, 교과부는 R&D사업의 관리 노하우를 살려 지원대상 과제의 선정업무를 주도하고 특허청은 특허관리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정된 과제의 진도관리를 주도하게 된다. 또한, 국내 최고의 실력을 갖춘 지재권 및 기술사업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방사능 피폭 치료제, 특허가 없다

일 본의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능 낙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요오드화칼륨(Potassium iodide, K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원자로에서는 우라늄이 핵분열하여 방사능이 있는 요오드(I), 세슘(Cs), 크세논(Xe) 등이 생성되는데 이중 요오드는 티록신(thyroxine)이라는 갑상선 호르몬의 핵심 물질로 체내에 흡수되면 체내 피폭을 일으켜 갑상선암을 일으킨다. 따라서 방사능이 있는 요오드가 체내에 흡수되면 빨리 방사능이 없는 요오드를 섭취하여 방사능이 있는 요오드를 배출시켜야 하는데 이때 섭취하는 것이 요오드화칼륨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다량의 요오드화칼륨을 비축하고 있는데 최근 가수요(假需要)까지 겹치면서 수요가 급증한 것이다.

요오드화칼륨은 특허 의약품이 아님에도 미국의 안벡스社 등 외국의 일부 제약업체만이 제한적으로 생산하고 있어 추가 분 생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특허청에 출원된 의약 용도로서의 요오드화칼륨에 관한 발명은 살균제 등이 일부 있었으나 방사능 치료제로서의 요오드화칼륨에 관한 출원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물질로서의 요오드화칼륨은 오래전부터 알려진 물질이므로 특허출원이 없는 것은 당연하지만 순식간에 광범위한 지역을 오염시키는 핵사고의 특성상 방사능 치료제로서의 요오드화칼륨은 한꺼번에 다량이 필요하게 되므로 신속하게 대량으로 요오드화칼륨을 제조하는 방법은 반드시 확보해야 할 기술”이라고 하며, “그동안 방사선 피폭과 관련된 의약품의 수요 부족으로 관련 특허의 출원이 거의 없었지만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볼 때, 국내 기업이 선제적으로 특허를 선점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안동시 최우수 지식재산도시

특 허청은 “2010년도 지식재산도시 사업추진 실적을 평가한 결과, 경북 안동시를 최우수 지식재산도시로, 대구 달서구를 우수 지식재산도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안동시는 전통식품, 문화유산의 지재권 발굴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안동의 전통문화유산인 “고택”을 브랜드화하여 관광상품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12개 문종의 휘장 전시회를 개최하고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지역 향토식품의 지식재산권화를 위해 “발효 산양삼차 및 이의 제조방법”, “산양삼을 함유하는 선식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 “조림닭의 제조방법”, “기능성인절미의 제조방법”, “안동흑마를 이용한 고농축 및 고기능성 제품 제조방법” 등의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출원을 지원하였다.

안동시는 2010년 1월 “안동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국비 1억 원 이외에 지방비 4억 원을 확보하여 영남권의 지식재산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1가 1지(1가구 1지재권 갖기), 1공 1지(1공무원 1지재권 갖기), 1부 1지(1부서 1향토지재권 발굴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바뀐 심결문 송달제도

특허심판원은 그동안 특별송달로만 받아볼 수 있던 심결문을 지난 4월 1일부터 전자송달로 받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특 전자송달제도는 특허청 전자출원포털사이트인 특허로를 통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대법원과 특허법원에서 특허사건에 대하여 지난해 4월부터 전자소송 서비스를 시작하여 빠르고 편리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어 특허심판원에서도 그동안 특별송달로만 운영되던 심결문 송달제도를 전자송달이 가능하도록 심판사무처리 취급규정을 개정했다.

특허심판원에서 발송되는 심결문을 전자로 받아보기를 원하는 경우 전자문서이용신고서를 신청하면 된다. 심결문을 전자로 송부 한 후 민원인 측에서 전자문서를 4일 동안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송달로 다시 송부하기 때문에 빠르고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심결문을 못 받아볼 경우에 대한 부담은 갖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전자송달된 심결문을 수신한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송달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민원인은 유의해야 한다.

이번 심판사무처리 취급규정 개정으로 바뀌는 제도에 대하여 민원인들이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여,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도록 PCRM(Polic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을 발송하는 등 변경제도에 대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하고 있다.

이 제도로 인해 기존에 특별송달에 소요되던 행정비용 중 약 2,9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방·의류 등 유행에 민감한 디자인' 권리 획득 빨라진다

특허청은 유행에 민감하고 모방이 용이하며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물품에 대해 조기 권리 획득이 가능하도록 디자인무심사 품목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한 디자인보호법 하위법령을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디자인무심사 대상품목이 기존 10개류(대상물품: 2,460개, 최근 5년 출원비율: 22.6%)에서 18개류(3,742개 32.4%)로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디자인무심사 품목의 확대 시행은 세계적으로 디자인무심사 확대 추세와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 확보 및 특허청의 심사처리기간 단축 의지와도 무관하지 않으며, 이를 위해 무심사출원의 처리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관련내부 규정도 이미 정비한 바 있다.

또한 세계 최초로 도입한 3D도면 출원의 확대를 위해 디자인업계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IGES(Initial Graphics Exchange Specification) 파일 형식을 추가하였으며, 동적화상아이콘디자인의 경우 움직이는 모습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동영상 파일을 참고 도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특허소송의 전자소송 제도 도입에 맞춰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 등본도 전자송달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출원인 등이 2인 이상일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